6월 광주 '베니스 글래스 판타지아'

유리 공예 거장들과 황홀한 데이트

광주일보·광주 시립미술관 공동 주최, 이탈리아 대사관·문화원 후원

6월 3일~8월 20일 옛 광주시립미술관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다. 베니스 영화제와 비엔날레, 카니발 등 각종 문화 행사와 함께 베니스의 진가를 드높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세계 최고'라는 찬사를 받는 '유리공예'.

장인의 혼이 살아 숨쉬는 베니스 유리 공예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전시회가 광주를 찾아온다.

광주일보사와 광주 시립미술관이 주최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문화원이 후원하는 '2010 광주 베니스 글래스 판타지아' 전시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내 옛 시립미술관 1·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 유리 공예 역사 300년 전통을 지켜온 스키아본 가문과 현존하는 최고의 유리공예 거장으로 불리는 피노 시료레타의 작품 등 모두 150여점이 전시된다.

베니스 유리 공예의 산실인 무라노 섬에 둥지를 튼 스키아본 가문은 화려한 색상을 위주로, 수백년 동안 전해져온 유리 공예 테크닉을 접목시킨 그들만의 완벽한 작품들로 찬사를 받는 유리공예의 산증인들이다.

지난 1978년 베니스 무라노섬에 공방을 오픈한 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노 시뇨레타는 유리조형 예술체계를 구축한 '글래스 마스터'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가 제작한 세계 최대의 유리구(球)가 유리 테마파크인 제주 유리의 성에 전시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서도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크게 '유리 이야기관'과 '유리 작품관'으로 꾸며진다.

'유리 이야기관'에는 유리공예의 역사(문서), 유리공예사진(30점), 동영상, 유리 재료 등을 전시, 관람객들이 유리공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특히 베니스 현지에서 온 예술가가 직접 시연하는 제작과정은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유리공예의 신비로운 장면들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리 작품관'은 가족 테마작품관과 예술작품관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는 스키아본 가문의 아티스트 10명이 제작한 대표작품 100여점과 피노 시뇨레타의 작품 20점, 그리고 화려한 비즈를 포함한 다양한 장식물 30여점 등 모두 150점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눈길을 끈다. 전시기간 중에는 베니스 유리공예 작가가 작품 제작 모습을 시연하며 관람객들이 체험해 보는 코너도 마련한다. 또 매일 관람객들에게 유리 공예 소품을 선물한다.

그밖에 유리공예 전과정을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해설하는 시간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2-220-05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적인 유리 공예가 피노 시뇨레타의 제작 모습.